

# 丁玲의 여성소설과 女性 담론

盧昇淑\*

## <目 次>

1. 序言
2. 本文
  - 1) 여성과 성의 발견
  - 2) 혁명과 사랑 사이
  - 3) 여성혁명가와 여성해방
3. 结语

## 1. 序言

중국의 신여성이 자신들을 발견하고 성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경제적인 권리 획득 혹은 역사적 사건에서 여성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참정권 획득, 재산권 소유, 공교육 기회의 확대, 자유연애와 결혼의 쟁취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이었다. 이 중에서도 자유연애로 대변되는 여성의 자기 존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려는 노력은 바로 자기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목소리에 기인하고 있다. 여성이 또 하나의 성으로서 또 다른 개인의 시각을 형성하려면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성의식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오사운동의 격변으로 시작된 1920년대의 보수적인 중국 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이 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유연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의 자연스런 발현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면서 토론의 장에

\* 신구대학 비즈니스중국어과 교수

등장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가능했다. 바로 1928년에 창작된 정령의 <소피여사의 일기(沙菲女士的日記)>라는 단편소설의 탄생이 중국문학사에 여성과 성애에 대한 담론의 시초를 알렸다. 정령을 작가로서 확실하게 문단에 각인시킨 작품이기도 한 이 소설은 소피라는 신여성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갈망과 이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와의 갈등을 담아내고 있다. 작품내용의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중국 현대문학이 두 번째 십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문단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일한 이유로 인해 여성문학사에는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소설이다.

정령은 이 소설을 시작으로 중요한 시기 여성에 대한 선진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해 중국 여성 문학 발전에 목격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1930년 봄 상해1,2><sup>1)</sup>는 1931년에 발표되어 여성이 시대적 사명인 혁명과 개인적 사랑사이에서 고뇌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에 관련된 여성담론을 이끌었다. 이어 36년에 창작된 <소피여사의 일기 제2부(沙菲女士的日記第二部)>는 미완의 원고로 남아 있지만 28년에 발표된 동명 작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대와 함께 변화된 작가의 여성관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41년에 발표된 <내가 하촌에 있을 때(我在霞村的時候)>와 42년의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은 사회주의 진영의 정풍운동 중 적지 않은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40년대 여성담론의 핵심을 이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다.

정령의 시대를 읽는 예민한 작가의식은 그녀의 문학 생애 전반에 빛을 더해주고 있지만 더욱이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여성의식이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여성담론을 형성케 하여 여성의 현실 및 정책에 대한 환기는 물론 논의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문학 창작의 중심으로 수용한 이후 그녀의 여성의식도 사회주의 여성주의로 변화되어 자유주의 여성주의와는 다른 발전양상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더불어 주류문학으로 떠오른 좌익 문학의 역사와 호흡을 함께 하게 되는 이유도 정치성향의 전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정령의 작품 중에서도 중국 현대 문학 시기 여성에

1) 원제<一九三零年春上海(之一)>, <一九三零年春上海(之二)>

대한 주제를 사회적인 주요 화두로 등장시키면서 여성담론을 이끌어 낸 작품을 중심으로 신여성의 여성의식과 여성 담론의 변화 추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本文

### 1) 여성과 성의 발견

“왜 사랑의 표현을 억누르고 있어야만 하지?”<sup>2)</sup> 아직은 소녀적 감성이 물씬 풍기는 소피는 당돌하면서도 절망적인 어조로 자신의 일기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이성과 교제하고 그 이성과 자유의지로 결혼하는 것은 여성 또한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인간기본욕구에서 출발한 명제이다. 그러나 신여성들에게 자유연애와 결혼을 쟁취해야 한다는 명제만 있었을 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할 수 없었던 시대상황<sup>3)</sup>에서 소피는 과감하게 여성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의문을 던져 온다. 미혼여성의 성의식을 대담하게 표현하여 중국 현대 문학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정령의 소설 <소피여사의 일기>에 대해서 작가 모순은 소피의 형상을 5·4 이후 해방된 젊은 여성 중 성애(性愛)에 대한 모순적 심리를 대표하는 인물 형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up>4)</sup> 당시 문단의 평가가 모순처럼 객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후에 출간된 사회주의 진영의 문학서는 소피의 여성의식을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퇴폐적 감성의 토로라고 분석하였으며 주류 문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소피의 출현은 내밀하게만 여겨

2) 丁玲, 《在黑暗中》, 《莎菲女士的日记》, p.60, 据上海开明书店一九二八年出版排印, 中国现代名家名作原版库, 中国文联出版公司, 1995. “为什么要压制住爱的表现?”

3) 丁玲, 《丁玲文集(4)》, 《青年恋爱问题》, 湖南人民出版社, 1982, p.289.

4) 王增如, 李向东 编著, 《丁玲年谱长编(上)》, 天津人民出版社, 2006.

5) 주덕발, 풍광림 지음, 김태만 옮김, <중국 현대 문학사 해설>, 열음사, 1993, p.364. “소피여사의 반항은 사실 나약한 것이었다. 그녀가 연출해낸 고뇌와 고독은 시대를 이탈하고

졌던 여성욕망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주의 문학비평서인 《浮出历史地表》는 소피의 갈등을 이화(異化)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녀의 모순이 단지 욕망과 이성의 모순이 아니라 소설의 담론형식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화된 욕망의 행동자인 나와 기록하고 관찰하고 사유하는 나 사이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피가 능길사(凌吉士)를 거부하고 ‘승리’를 거부했지만 소피는 스스로 도시에서 방출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sup>6)</sup> 나와 나 사이에서 또 나와 타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으로 인해 이화된 소피는 여성을 상품화 하는 남성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고독뿐이었다. 승리한 소피는 ‘집을 나온 노라’처럼 여전히 귀착점을 찾을 수 없었다. 소피에게는 고독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사회를 향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사랑할 권리는 사랑할 수 있는 내부의 에너지인 성적 욕구의 자연스러운 구현이며 여성의 성욕은 여성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욕구중의 하나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적 보편의식은 여성의 성을 왜곡하거나 은폐시키곤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남성에게 소유물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 역할에 있어서는 크게 ‘출산의 성’과 ‘쾌락의 성’으로 나뉘었다.<sup>7)</sup> 여성의 성이 이분화되면서 일반여성들은 출산의 성만을 강요당했으며 이와 함께 생성된 여성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터부시하는 사회적 관행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만약 이러한 금기를 어길 경우에는 자의적 처벌이 사회적 합의하에 용인되거나 독려되기도 함으로서 억압의 기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자기 육체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으며 마치 소유물처럼 타인의 침범도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

인민을 멀리하는 개성주의적 속성의 폭로에 다름아니었다.”

6) 孟悦·戴锦华, 《浮出历史地表》, 河南人民出版社, 1989, pp.121-122.

7) 쾌락의 성은 소수 관기들에만 허용되었고 그녀들에게는 도리어 출산의 성이 봉쇄되었다.

의 성은 오랜 기간동안 억압된 여성의 상징이었다. 이 작품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억압되고 욕망을 표현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남성의 성적 도구로 여겨졌던 중국 전통 여성의 가장 슬픈 진실을 공론화하였다.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던 성적 욕망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여성은 성정체성(性整体性)을 찾을 수 없고 여전히 부차적인 주변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면의 자아가 들려주는 목소리는 20년대 말 중국여성에게 던져진 가장 무거운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정령이 시도한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전통적인 서사윤리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피라는 여성인물의 형상이 당시 주류 의식과 남성문학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기존의 서사윤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여성작가들이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은 남성문학의 역사와 권위에 중대한 변형과 해체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성 자아의 창조는 여성인물이 타자적 존재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피가 세상을 향해 여성의 욕망을 표현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금기와 남성의 권리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인하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역사의 주체로서도 나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성담론이 사회적 성의 영역에서 생물학적 성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가장 본질적인 성욕의 영역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 2) 혁명과 사랑 사이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집단 간 이익 충돌의 갈등은 아마도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넓은 범위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을 것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서 문학영역에서는 개인과 집단 간의 무게중심을 작가가 어느 위치에 놓아두느냐에 따라 그 기울기는 끊임없이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작가의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그 시대의 여성의식을 연구한다는 시각에서 개인과 사회 양자 간의 갈등 모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여성의 정체성이 당시 남성으로 대변되었던 개인의 위치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중국 근, 현대 여성 문학에 그대로 보편적 ‘개인’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의 처지가 남성과는 사뭇 다른 한계를 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이 사실은 보편의식보다는 여성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당시 여성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특수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적어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주체였던 개인의 범주 속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20년대 초반, 여성이라는 단어가 중국에 처음 소개되기 이전에는 남성과 대등한 성으로서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1920년대의 여성문학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불러온 여성의식을 탐구하며 개인과 여성의 차이에 집중해있던 시기였다면 30년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대변되는 집단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붉은 30년’이라고 불리울 만큼 문학사에서 좌익문학(左联文学)의 흥성기를 맞이한 1931년에 정령은 <1930년 봄 상해><sup>1,2</sup>를 창작한다. 이미 모순이나 장광자 등 좌익계열의 남성작가들은 여성해방과 혁명의 결합을 제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 30년대 좌익문학의 새로운 문학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sup>8)</sup> <1930년 봄 상해>는 동일한 제목 하에 1,2편으로 나뉘어져 여성으로서 사랑과 혁명을 고뇌하는 미림(美琳)과 마리(瑪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한 남성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평화로운 안식을 만끽하던 미림은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소원함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감지한다. 정신적인 공허함과 사회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방황하던 그녀는 남자친구의 지인이었던 약천(若泉)의 도움으로 혁명에 투신하게 된다. 아름답지만 단순했던 미림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이지만

8) 모순의 <蝕>과 장광자의 <重出月亮>등이다.

충명한 마리는 남자친구가 혁명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관을 논리적으로 관철시키며 혁명을 거부한다. 미림의 예가 전형적인 ‘남성에 의한 구원’의 모식이라면 마리는 ‘여성의 주동적 선택’의 모식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마리는 자산계급의 지식여성으로서 여성의 가치와 권리의 획득을 위해 다분히 반역적인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3년 전의 소피를 떠오르게 한다. 소피의 화신처럼 나타난 마리에게는 소피에게는 없었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대적 갈등요인이 더해져 있다. 남성 혁명가들은 여성이 그들에게 혁명의 동지이며 동시에 성애의 파트너이길 바랐다.<sup>9)</sup> 젊고 혈기왕성한 마리의 남자친구는 마리의 부르조아적 기질은 폄하하면서도 그녀와의 육체적 관계는 지속하길 원했다. 결국 마리와 이별을 한번 경험했던 그의 선택은 마리를 혁명의 동지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두 작품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위호(韦护)>에서부터 다루어지고 있는 남성혁명가의 애정 및 여성관의 특징은 그들이 봉건시대와는 달리 여성과 동지애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마치 신문화의 선구자들이나 지식청년들이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구시대여성을 거부하고 신여성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신사상(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계통을 막론하고)을 주장하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사유는 계몽주의에서 주장했던 ‘여성의 발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신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아내에 불과했다. 신여성의 교육기회나 사회활동기회는 과거보다 확대 되었지만 양성(兩性)의 성역할은 변하지 않고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연출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여성의 고민이 더 깊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마리는 혁명과 사랑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던 작가 정령을 그대로 반영하듯 혁명과 사랑 양쪽 모두에 애매하게 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령의

9) 丁玲《丁玲文集(1)》,《韦护》,湖南人民出版社,1982,p119.“一面是站在我不可动摇的工作上,一面是站在我生命的自然需要上。”

이 두 작품은 여전히 사랑과 혁명을 원만히 결합하고자 하는 ‘혁명적 낭만(革命的浪漫蒂克)’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여주인공 모두 중국에는 혁명에 참여하게 되지만 동기 부여는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자유롭게 성애를 즐길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마리가 혁명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는 지극히 충동적이어서 개연성이 다소 부족한 전개라는 비평을 면할 수 없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혁명으로의 선회를 상징하면서 결말을 맺고는 있지만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아직 ‘보류’하고 있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령은 이 두 작품에서 여성담론의 영역에 사회주의 혁명이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성작가들의 혁명적 낭만주의를 다룬 작품에서 전개되는 남성선구자에 의한 여성의 단순한 구원과 두 사람의 동지애적 결합의 원만한 서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담론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의 하부 체제에 위치하게 되었고 점차 ‘사회주의 여성 담론’으로 변형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정령의 여성의식이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시대 보고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1936년에 창작되어 미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소피여사의 일기 제2부>는 정령이 사랑과 혁명사이의 과도기를 보낸 이후 정령의 신변과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예쁜 딸도 출산하지만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어야 했고 아이도 고향의 어머니께 맡기고 홀로 상해에 머물고 있는 그녀의 삶은 역사적 격동기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 온 그야말로 파란의 세월이었다. 정령이 30년대 초반을 과도기로 삼아 이 작품 이후 좌익작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미림이나 마리처럼 정신적 허망함을 채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이념의 변화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사랑과 혁명이 한데 어우러진 가장 치열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정령은 시대와 함께 성숙해 있었다. 여성으로서도 더욱 성숙해졌으며 정치적인 이념도 방향성을 찾아 가고 있었다. 정령은 이후 ‘이중의 생활’



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집단과 개인 및 여성자아의 갈등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선택을 보여준다. 이중의 생활 중에 하나는 정치생활을 말하고 또 하나는 정치생활과 충돌하는 지식인의 내재된(개인본위의 5·4 사상) 정신생활을 일컫는다.<sup>10)</sup> 당연히 정치생활이 개인의 정신생활보다 우위에 있음을 피력하고 있으며 향후 그녀 작품의 방향성도 이 주장을 따르고 있다.

### 3) 여성혁명가와 여성해방

1930년대 중후반, <물(水)>과 <전가충(田家冲)>을 잇단 발표하면서 좌익작가로서의 단단한 입지를 마련하기 시작한 정령은 40년대에 다시 사회주의 여성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일으킨 두 편의 작품을 연안에서 발표한다. 단편소설<내가 하촌에 있을 때>와 산문<삼팔절 유감>이 그것으로, 당시 정령의 여성의식에 대한 견해는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에의 참여가 여성이 역사에 뛰어드는 방법이었고 그 과정 중에서 여성은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sup>11)</sup> 연안 기지에서 여성 혁명가로 거듭난 정령은 해방구의 문화사업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집단의식이 개인정신을 완강히 억누르고 있었고 여성의식은 작품에서 거의 표현하지 않았던 정령은 항일전쟁이 한창인 1941년 공산당 내부 지식 여성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한 단편소설 <내가 하촌에 있을 때>를 통하여 해방구 여성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 작품은 적군에게 강간당하여 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여성 공작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sup>12)</sup> 전쟁이 할 낀 자국과도 같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절을 잃은 여성에게 가히 '집

10) 秦林芳, <独立性·真实性·批判性—40年代初期丁玲启蒙文艺思想论析>,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第5期,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杂志社, 2008, p.123.

11) 王侃, <九十年代中国女性小说的主题与叙事>, 文学评论, 第4期, 中国社会科学院, 2008, p.180.

12) 王增如, 李向东 编著《丁玲年谱长编(上)》, 天津人民出版社, 2006, p.158. “这是我听当地一个妇联工作的女同志告诉我的一件事, 我并没有直接见到这个人。我觉得这个女人牺牲很大, 但是她没有被痛苦压倒, 她也是向往着光明的, 我就是想写这样一个人。这种人, 这样的事, 在当时抗日前方的村子里是不少见的。”

단적 살해'와 같이 가해지는 사회적 질타<sup>13)</sup>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사회적 질타 속에는 비단 남성들의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여성들은 주인공의 더럽혀진 육체를 혐오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강간당하지 않은 순결한 육체가 더욱 더 숭고해짐을 느꼈다. 자신들의 순결이 오욕의 육체로 인해 새삼 자랑스러워지는 정신적 만족감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정령은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되어 극심한 성병을 앓고 있는 여주인공에게 정절을 뜻하는 글자가 두 번이나 나란히 들어가 있는 정정(貞貞)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누구보다도 성정이 순수한 정정은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큰소리 내어 울지도 않는 그녀의 의연함이 그녀를 더욱 가련하게 했다. 작품은 이와 같이 묘사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주제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장치를 여러 요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정정의 육체는 일본군의 만행과 해방군의 영광이 동시에 실현되는 장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열여덟 살 밖에 안 된 여주인공의 육체를 통해서 일본군은 성적 욕망을 채웠고 해방군은 이데올로기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30년대 초반 남성혁명가와 여성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은 개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해방구 안에서 여성과 대중 및 이데올로기와의 충돌은 여성에 관한 담론이 이미 사회주의 여성해방정책의 차원에 속하는 공적영역의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방구(解放区) 여성담론은 1942년 3월 8일 부녀절(妇女节)을 맞이하여 신문에 게재한 수필 <삼팔절 유감>에 이르러 그 정점을 이룬다. 정령 자신이 이미 사회주의 여성혁명가로 변모하였고 혁명의 중심 기지였던 연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시기에 창작된 만큼 이 작품은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극렬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뒤이어 이어진 정풍운동시기에는 정령 자신의 정치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

13) 孟悦、戴锦华，《浮出历史地表》，河南人民出版社，1989，p.134. 정정을 질타하는 마을 사람들을 “一个由几千年封建小农意识汇聚的无意识杀人团”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주인공은 농촌출신이지만 교육을 통해 일종의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니 지식여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적고 있다.

다. 그러나 연안의 여성상황과 사회주의 여성정책에 대해 비판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한 편의 산문으로 인하여 여성은 해방구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고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40년대 초반 혁명담론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었다.

연안의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에 비해 섭식은 좀 나은 상황이었지만 결혼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성역할은 똑같이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명기지에서 결혼과 출산은 타 지역에서와는 달리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었다. 연안의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여성 성역할에 전념하는 동안 신체적으로 노화하고 정신적으로는 퇴보하여 결국엔 ‘혁명의 낙오자’가 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전통사회에서라면 가련하거나 박명하다는 동정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그녀들은 단지 도태된 혁명가일 뿐이었고 모든 책임은 그녀 자신들에게 있었다. 자업자득인 것이었다.<sup>14)</sup> 인민 해방을 위해 여성도 사회주의 혁명 대오에서 당당히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혁명이 여성을 해방 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봉건사상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여성 해방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여성의 해방은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대 사회의 모든 메커니즘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40년대의 정령은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화두를 해방구의 혁명가들에게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 여성혁명가이지만 남성혁명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녀들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전통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희극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30년대 초반 정령이 우려하던 양성관계의 불합리성은 ‘가정으로 돌아온 노라’<sup>15)</sup>의 모습으로 현실화 되고 있었으며 현실 속 노라의 남편은 단지 자본가에서 혁명가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정령이 모주석(毛主席)을 위시로 한 남성지도자들에게 혹독한 비

14) 丁玲, 《丁玲文集 (4) 》, <三八节有感>, 湖南人民出版社, 1982, p.390.

15) 丁玲, 《丁玲文集 (4) 》, <三八节有感>, 湖南人民出版社, 1982, p.389. “回到家庭了的娜拉”

판을 받은 이유도 해방구 여성의 실체가 너무나도 신랄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지도층은 이번 논의의 초점을 정령 개인의 사상적 결함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정령의 논리가 이미 훨씬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정치비판이 전에 없이 강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해방구 여성들에게 미치는 과급효과를 지도층이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개인은 바로 남성을 지칭하고 그런 남성의 집합체가 바로 집단의 개념이었고 집단의 사유방식이 이데올로기로 여겨지던 시대에 여성은 이 모두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존재였다. 실제로 인민해방군이었던 연안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중성화, 무성화 내지는 남성화 될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데올로기를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sup>16)</sup> 여성은 남성과의 양성관계에서는 전통적 여성의 모습을 요구 당했고 집단과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남성화되기를 강요당했다. 해방구 여성들의 현실적 선택은 전통적 여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성이 거세당한 중성의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어설픈 남성의 모습으로 역할 하는 것이다. 여성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바탕이 되지 못한 무산계급 해방 운동은 여성을 질곡의 상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여성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은 정치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류라고 지적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그녀의 여성의식이 패배했음을 인정했다. 정령의 패배는 곧 수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연안의 여성정책이 여과 없이 공화국의 여성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 3. 结语

정령은 초기 작품에서부터 선진적인 여성의식을 과격적인 내용으로 담아내는 창작경향으로 인해서 현대중국사회에 가장 급진적인 여성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의 담론들은 중

16) 문화대혁명 시기 철저하게 여성성이 억압된 여성의 중성화 및 무성화 혹은 남성화의 경향은 극좌성향의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극단적인 폐해를 입증해 주는 예이기도 하다.

국사회의 여성의식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다. 중국 현대 문학사의 20년대 후반부터 항일전쟁의 한창인 40년대까지 정령은 그녀의 문학적 성장점과 함께 주요한 여성담론을 이끌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령의 대표적인 여성소설과 주요 여성담론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여성담론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던 여성의 성적 욕망의 표현과 자기 육체의 결정권을 추구하는 주체성에 관한 담론이다. 1928년의 초기 소설집 <어둠 중에서 (在黑暗中)>의 창작시기가 여기에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단편소설인 <소피여사의 일기>는 5·4신문화 운동으로 탄생한 제1세대 신여성 작가들을 잇는 제2세대 여성작가에 이르러 여성에 관한 논의가 여성의 육체와 욕망의 차원으로 확장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지된 여성 성욕에 대한 글쓰기는 전통적 서사윤리와 여성의 억압기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담론을 이끈 작품은 여성성의식의 관점에서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 구도를 재해석하는 <1930년 봄 상해>1,2편이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여성의 관점에서 당시 좌익문학의 남성작가들이 모식화한 혁명적 낭만 구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담론의 영역을 혁명과 개인의 양자 구도에서 여성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여성담론은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방기되거나 거대담론에 묻히는 여성문제들과 해방구의 여성정책이 대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령의 작품 <내가 하춘에 있을 때>와 <삼팔절 유감>은 해방구 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다시 한 번 치열한 여성담론을 불러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정령의 자아비판으로 담론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인식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이후 중국 관방의 여성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령의 문학 작품과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그녀가 중국 현대문학사에 남긴 여성소설들의 중량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여겨진다. 정령의 문학적 성격이 어떤 형식으로 변화를 맞이하던 그녀의 여성의식은 잠들었다 다시 깨어나고 또 잠재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국 현대 여성문학과 여성의

식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 정령은 역사의 주요시기마다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에 관한 선진적 담론을 도출해냄으로서 여성의식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공동체가 양성평등을 진지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여성담론의 역사가 곧 중국 현대 여성의 문학사를 이루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여성이었고 작가였고 혁명가였던 정령이 있었다.(完)

#### 《參考文獻》

- 丁 玲, 《丁玲文集 (1-10) 》, 湖南人民出版社, 1982.
- 吴福辉、钱里群 主编, 《丁玲自传》, 江苏文艺出版社, 1996.
- 王增如、李向东 编著, 《丁玲年谱长编》, 天津人民出版社, 2006.
- 孟 悦、戴锦华, 《浮出历史地表》, 河南人民出版社, 1989.
- 王 绯, 《睁着眼睛的梦》, 作家出版社, 1995.
- 杜学元, 《中国女子教育通史》, 贵州教育出版社, 1995.
- 刘惠英, 《走出男权传统的樊篱—文学中男权意识的批判》,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1995.
- 刘达临、胡宏霞 著, 《中国性文化史》, 东方出版中心, 2007.
- 주덕발·풍광림 지음, 김태만 옮김, 《중국 현대 문학사 해설》, 열음사, 1993.
- 张 莉, 〈我们女子呵—第一代女作家的现代女性意识片论〉,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第2期,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杂志社, 2008.
- 秦林芳, 〈独立性·真实性·批判性—40年代初期丁玲启蒙文艺思想论析〉,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第5期,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杂志社, 2008.
- 王 中, 〈论丁玲小说的语言变迁〉,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第5期,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杂志社, 2008.
- 王 侃, 〈九十年代中国女性小说的主题与叙事〉, 文学评论, 第4期, 中国社会科学院, 2008.

《中文提要》

有史以来,性的话语在私下里被暗暗探讨,造就了一种最隐秘的话语空间,公开提出深思的时间并不长。中国现代史处于中国女性史的开端期,自由恋爱、自由婚姻、自立独立的问题在理想和现实中彷徨的时期。在五四退潮的女性话语中,丁玲笔下的女主人公莎菲,否定作为封建女性的自我,而又全面拒绝了以结婚和家庭为代表的女性压迫机制。她用极端的方式反叛依旧的男性,依旧的结婚,依旧的女性遭遇。该作品当时引起了先进的女性话语,文坛与社会都对女性的性欲望和整体性开始具体探讨。后来丁玲不断地供给中国文坛影响力较大的有关女性意识的作品,比如<一九三〇年春上海(之一)(之二)>、<我在霞村的时候>、<三八节有感>等等,这些作品都处于该时期女性话语的最中心领域。本问通过对丁玲现代时期写作的几篇女性作品的解读,来分析丁玲在时代的变化当中所发展的女性意识的变迁。

**關鍵詞** : 여성, 성의식, 여성담론, 사회주의 여성, 여성혁명가

이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